



Market Index / 5일

코스피지수 ▼ 5163.57 -207.53	코스닥지수 ▼ 1108.41 -41.02	유가(WTI, 달러) ▲ 65.14 +1.93	환율(원) 1USD 100¥ 1488.19 948.16	찰때 1437.01 915.56	찰때 1EUR 1CNY 1760.13 221.36	찰때 1691.45 200.28
-------------------------	------------------------	---------------------------	--------------------------------	-------------------	-----------------------------	-------------------

“제주 다크투어 역사관광 넘어 인권관광 모델로”

도 ‘제주형 다크투어리즘 모델 구축’ 용역서 제시 윤리적 가이드라인 제정 ‘기억 참여형 관광’ 제안 이용객 43% 부정적 영향으로 ‘관광상품화’ 꼽아

비극적 역사 현장을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는 다크 투어리즘. 제주4·3 소재 장편 소설 ‘작별하지 않는다’를 쓴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제주 역사 등이 재조명되고 방문 수요가 늘며 이를 체계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다크 투어 콘텐츠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제주형 다크 투어리즘을 역사 관광을 넘어 인권·평화 관광 모델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제주도의회로 제주연구원에서 수행한 ‘제주형 다크 투어리즘 모델 구축’ 용역 결과다.

5일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제주는 전국에서 처음 다크 투어리즘 육성 조례가 만들어졌지만 전체 이용객 수가 파악되지 않고 자원 목록화가 안 되는 등 정책적 접근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제주형 다크 투어리즘 핵심 추진 방향으로 통합 조정 기구인 플랫폼(센터 혹은 협의체) 설치와 공동 기획, 홍보 등 공공·민간 협력형 거버넌스 구축을 강조했다. 또한 마을 해설사, 유족 해설단을 통해 감수성을 증진시키는 여행으로 이끄는 주민 참여형 운영 모델 확립과 함께 동아시아정

년인권포럼 개최 등 국제 평화·교육 관광도시로의 확장이 제시됐다.

용역진은 제주형 다크 투어리즘에 대해 “단순한 역사 관광이 아니라 기억의 보존, 사회적 치유, 평화·인권 교육, 지역 공동체 회복, 지속 가능한 문화·관광 자원화가 결합된 종합 정책 분야”라며 5개년 단위 통합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공간·콘텐츠·교육·인력·재정 체계화와 품질 관리가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 다만 일부 유적지가 포토존으로만 부각되는 등 관광상품화 논란을 짚으며 윤리적 관광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기억 소비’가 아닌 ‘기억 참여형 관광’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제주연구원이 발간한 ‘제주 다크 투어리즘의 현황 및 실태 조

사’(연구책임 현혜경 부연구위원)

보고서를 보면 이용객 203명 설문

결과 방문 목적은 ‘역사적 사실 학습’(62.6%)이 가장 높고 ‘희생자 추모·공감’(16.3%)이 뒤를 이었다.

응답자의 85.2%는 ‘타인에게 추천

하고 싶다’고 밝혀 다크 투어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콘텐츠 개발 시 중요하게 여겨야 할 요소로는 ‘왜곡 없는 사실

기반 구성’(33.5%), ‘기억·인권·평화의 의미 전달’(25.6%)을 꼽았다.

반면 다크 투어리즘의 부정적 영향

으로는 ‘유적지가 관광지로 소비되며 의미가 퇴색될 가능성’(23.2%),

‘단순 흥미거리로 소비될 경우 유가족에 대한 배려 부족’(20.2%)이라는 답이 많았다.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청년층 고용 부진… 안정적 고용 기반 확충을

한은제주본부 ‘제주 청년층 고용 부진 특징’ 보고서

엔데믹 이후 제주지역 청년층 고용 부진이 관광경기 둔화와 같은 단기적 경기 요인뿐만 아니라 노동시장 구조 변화, 미스매치 심화에 따른 유류 노동력 증가, 인구 유출과 같은 구조적 수급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청년 고용정책은 단기 경기 대응을 넘어 노동수급의 구조적 제약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다.

5일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내놓은 ‘최근 제주지역 청년층 고용 부진의 특징 및 시사점’ 보고서(작성자 경제조사팀 이한세 과장, 박민영 청년인턴)에 따르면 2022년 대비 2025년 제주 청년층(20~39세) 취업자 수는 1만1400명 감소했다. 같은 기간 청년층 인구감소 영향이 크게 작용하고 있지만 이를 제외하더라도 1600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2022년 관광경기 회복 과정에서 경제활동참가율이 하락하

며 취업자 수 감소 압력이 발생했고, 여기에 관광경기 둔화에 따른 노동수요축소가 맞물리며 단기적 고용 부진이 심화됐다”고 진단했다.

이에 보고서는 단기적 경기 대응에 더해 노동수급의 구조적 제약 요인을 완화하고 청년층이 지역 내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고용 기반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제주지역 청년 고용정책이 설계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단기적으로는 관광 관련 서비스 업종을 중심으로 재취업 지원과 직무 전환 훈련을 통해 청년 인력 재유입을 촉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전문인력 양성 체계 구축을 통한 미스매치 완화 필요성 등을 제시했다. 또 전문인력들이 도외 지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주거·문화·생활 인프라 개선을 통해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고 신산업 전환을 통해 고부가가치 일자리 확대 필요성도 제언했다.

오은지기자



서울패션 위크 트레이드쇼 ‘페피들 한자리에’ 5일 서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열린 ‘서울패션위크 2026 FW’에서 100여개 브랜드가 참여한 트레이드쇼(Trade show)가 열렸다. 각국 패션업계 관계자들이 전시된 FW의상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감귤묘목·포트묘목 분양

* 감귤보급품종(1~3년생)

- 레드향 ● 천혜향
- 카라향 ● 황금향
- 한라봉 ● 궁천
- 유라조생
- 오하라베니와세
- 금귤 ● 하귤(아마나스) 외



* 국내육성품종(1~3년생)

- 원터프린스 ● 하례조생
- 미니향 ● 탐나는봉
- 미니몬 ● 제라몬

포트묘목 생존률이 높고 심는 시기 조절 가능
유라조생 / 카라향 / 레드향 / 황금향 / 천혜향 / 한라봉 / 하례조생 / 원터프린스 / 하귤 / 오하라베니 / 레몬 외

민성종묘는 종자업등록 국립종자원 품종신고 농축진흥청 통상실시 계약자로 생산, 축식하여 공식 판매하는 종묘업체입니다.

희망을 품은 감귤묘목을
생산하겠습니다



민성종묘

농장 : 서귀포시 선반로 112-5(강정동2327-1) 하예동 1831-2번지 외 품종별 농장위치가 다릅니다. 사전에 연락 부탁드립니다.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12-20-02호 010-3694-5423

리모델링의 선두주자

濟(제) 州(주) 리모델링

辛(신) 一(일) 祥(조)

직원
수시모집

누수탐지·방수

누수탐지 : 가스식, 청진기식 수도배관 누수청소

신축 / 증축 / 리모델링 / 화장실 리모델링
아파트 / 단독주택 전체 리모델링 / 지붕개량 /
옥상방수 / 페인트공사 / 창문 / 도어문 / 대문 교체
불박이장 / 싱크대 / 신발장 / 도배 / 장판 / 몰딩 시공 / 징크 공사

유품 정리해드립니다

책임시공, A/S 견적무료

정성을 다하는 직접시공, 혼을 담는 책임시공

주소 | 제주시 진동로 5길 9, 유진빌라 201호

친절 | 064.742.6234

문의 | 010.7599.6234



의료안내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120323-중-3524호

동구치과의원
DONGGU DENTAL CLINIC

일요일도 정상 진료합니다.

원장 신동구



제주시 이도2동 2007-8
(중앙여고 입구 맞은편 중앙신협 2층)

756-2833